#### /1)들어가기

인도에서 생겨났긴해도 불교가 [1919년 현재] 인도에서는 거의 죽어 있다[1930년 대 B.R. Ambedkar에 의해 시작된 불교 재흥(약 60 만 명의 추종자) 움직임이 관련 불교 국가 들과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초기 불교 포교자들의 열정은 그 신념 (faith)을 그 모국 땅 경계 너머 멀리 확장시켰다. 그러나 불교의 본디 역사들이 결여되있지 는 않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스끄리뜨어로 된 그 붓디스트 문헌의 체계적인 역사가 나타 나지 않았다. 불교는 방대한 문헌을 지녔다. 불자들의 문어적 저작들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불교의 신성시된 언어(language)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 종교는 초기에 여러 종파들 로 갈라졌으며 종파들 각 각은 자기 자신의 신성시된 말(tongue)을 지녔다. 불교의 본디 언 어가 무엇이었으며, 붓다 자신에 의해 사용된 말의 단편들이 우리에게 전해졌는 지는 아직 까지 논쟁 중인 물음이다. 그 본디 언어가 무엇이었든 지금 확실한 것은 빨리(pali, 빠알리) 어가 그 명예에 대한 우선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불자들에게는 빨리 어와 산스끄리뜨어 라는 두 개의 신성시되는 언어 만이 있다. 빨리어는 불교의 산문적인 그 리고 보다 더 고대 형식을 준수했던 실론(Ceylon, 스리랑카)과 Siam과 Burma 불자들의 성 직자 계층의 언어이다. Tibet과 China와 Japan의 신성시되는 언어는 산스끄리뜨어이며 그리 고 비록 산스끄리어[의 글로] 쓰여진(written) 아주 드문 불교 책자들이 거기에서 발견됐기 는 해도 티벳어와 중국어로 번역됐던 그리고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멀리(beyond recall) 사라졌다고 믿어졌던 산스끄리뜨어 경전(canon)의 일정 부분을 중국 학자들이 회복하는 데 에 성공했던 방대한 량의 엄청난 불교 문헌이 한 때 있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불 교의 역사는 유럽어로 [말하고 쓰는] 우리들에게 중국과 티벳 불자 저술들의 본질이 전달될 때 그것에 던져지는 충분한 량의 빛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빨리어 불교는 간결하다는 장점 을 지니고 있으며 다소 격렬하게 유럽에서 연구되어 왔다. [반면에] **산스끄리뜨어 불교**는 의 구심과 함께 하는 불이익(disadvatage)을 당해 왔다. 보다 후기의 저작들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이 산스끄리뜨어 불자 문헌이 구체화시켜주고 있 는 그리고 빨리어 텍스트들의 어떤 것과 같은 존경심을 받을 만한 고대 연도까지 거슬러 올 라가는 텍스트들의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데에 의구심을 지닐 뿐이다./

빨리어는 Theravāda 불교 저술(scriptures)들의 집단적으로 Tipitaka라고 불리우는 경전
텍스트들(canonical texts)과 그것의 주석들의 언어이다. 빠알리(pāli) 라는 용어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저술들의 경전 텍스트들을 뜻하며, 그 용어의 현재 쓰임새는 pālibhāsā "the language of the canon, 그 경전의 언어"의 축약이다. 그 텍스트들은 실론(Ceylon, 스리랑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론으로부터 그 텍스트들이 전달받은 Burma(미안마)와 태국 (Thailand)에 보존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교의 첫 수 세기 동안의 북인도에 그 기원을 둔는데, 전통은 그것들이 기원전 3 세기 Aśoka 황제의 아들 Mahinda에 의해 실론에 가져와 졌다고 한다. 실론에 가져와진 후 알려지지 않는 시기에 빨리어는 인도에서 사용되지(use) 않는다.

그 언어는 중세 인도-아랴 방언(Middle Indo-Aryan)에 기초를 둔 문어이다. **붓다가 그것** 의 반대편에 섰던 힌두교의 언어인 산스끄리뜨어는 **붓다에** 의해 가르침을 담는 것으로서 단호하게 금지됐다. 추측컨데 이것은 산스끄리뜨어가 이미 붓다의 생애 동안 교양(learned)언어였으며 붓다가 개종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쉽게 지성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사들의 토속어 사용과 그리고 교사들의 선교와 교육에 개종 대상의 사람들의 토속어 사용을 선호했다. 수 많은 중세 인도-아랴인들의 토속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포함되어졌으며 그리고 그런 언어들 모두로 [말해진] 붓다의 낱말들과 설교들의 그들 자신의 언어 버젼들이 보존됐다. 붓다 교육의 커다란 중심지들이 성장해가면서 어떤 버젼들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 자신의 방언 버젼들이 부분적으로 심지어 커다란 중심지들에서조차 채용됐던 많은 순회 교사들이 확실히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지닌 방언들의 이런 다수성 때문에, 발생 지역을 빨리어에게 배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붓다 자신은 Kosala(현대 Oudh)의 원주민(native)이었으며 거 기와 Magadha(현대 Patna와 Gaya 지역) 두 곳에서 설교했다. 이 두 곳 모두는 현대 Bihar 안에 또는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Māgadhī "the language of Magadha" 라는 용어가 실론에 서의 빨리어(pali)에게 적용됐다. 그러나 빨리어 문서들은 하나는 그 경전의 고대 판들에서 발견됐으며 다른 하나는 경전적인 그리고 비 경전적인 산문에서 발견된, 다른 연대기적 기 간들의 두 가지 주요한 방언[의 글로] 그리고 더 늦은 버젼들[의 글로] 쓰여졌다. 어느 방 언도 후대의 문서들과 문법가들을 통해서 알려져 많이 다루어진 Māgadhī Prakrit와 밀접하 게 관련되지 않는다. Māgadhī 비슷한 몇 몇 형식들이 빨리어 텍스트들에서 발견되지만 그 것들은 보다 더 근원적인 비(non, 非)Māgadhī적인 방언들로부터 빌려와진 것으로 간주된다. 빨리어의 진실한 발원지에 관한 많은 추측들이 있어왔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Magadha 보 다 더 서쪽으로 멀어진 북인도 지역들로 다그쳐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북서 쪽 의 커다란 대학, Takṣaśīlā이라고 추측됐지만 아마 Avantī의 수도 Ujjayini(Ujjain)이 현대학 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선호된다. 빨리어 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방언 형식들의 커다란 뒤 섞임은 이런 기본적인 서부 또는 서부 중심적인 방언에 다양한 언어 버젼들의 부여에 의해 서 야기된다.

//빨리어(Pali)는 Theravāda Buddist canon(테라바다-소승- 불교 경전)의 언어이다. 그 단어는 주석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경전) 텍스트'를 본디 뜻하는데, 특별한 언어라는 감각에서의 그 용법(usage)은 아마 'language of the cononical text'(경전 텍스트의 언어) 대신에 'Pali language'(빨리어)를 뜻하는 것으로서의 복합어 Pāli-bhāsā의 그릇된 해석 (misinterpretation)으로부터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잘못이 처음 발생한 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낱말은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이 17 세기 말 경에 거기에 갔을 때 태국에서 사용되어졌다(Pruitt 1987: 124-5).

빨리어는 산스끄리뜨어(Sanskrit)와 그리고 고대 인도아랴어의 다른 그러나 지금은 사라

진(lost) 방언들로 부터 파생됐던 Prakrits라고 때로 불리운다. 빨리어는 압도적으로 서부 (western) 방언이며, 그것의 특색들은 Ashoka(기원전 3 세기) 비문들의 서부 방언들의 그 것들에 밀접하게 닮는다. 그 언어는 일정한(uniform)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운율이 아마 업데이트된 형식들에 의한 고어체(archaism)들의 교체를 배제했을 특히 시적인(verse) 텍스트들에 있어 많은 고어체들을 보여준다(Geiger 1916:2). 심지어 이런 고어체들을 따를 때 조차 빨리어는 그것의 어떤 특색들이 다른 Prakrits들에 보다 더 적절하므로 단일한 동 질의 언어가 아니다. 이 (고어체)들은 종 종 변칙(anomalous)적인 음성학적인 발전의 예들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많은 형태론적인 특색들을 포함한다. 더구나 예를들어 어떤 자음 군의 굳어진 그리고 동화된 버전들 또는 두 가지 다른 길에서 동화된 하나의 군(group)과 같은 많은 교체(alternations)들이 있다. 이런 특색들 중 어떤 것들은 다른 방언들의 전형이며 그래서 빨리어에로 빌려와진 것들로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런 혼합된 언어는 말해진 하나의 어떤 토속 방언과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문어 (literary language, 文語)로 분류되야만 한다. 이런 변칙적인 어떤 것들은 아마 불자 (buddhist)의 가르침들이 그것을 통해 붓다(buddha)시대(기원전 5 세기 또는 6 세기)로부터 말로(orally) 전달됐던 초기 방언들의 흔적들일 것이며 그리고 번역 과정에 있어서의 결점들로부터 기인했을 것이다. 그렇게 발생한 번역은 애매한 맥락(contexts)에서의 번역 규칙들의 기계적인 그리고 잘못된 적용에서 기인하는 과도한 형식(hyperforms)들에 의해서 증명된다—예를들어 유성자음들의 자동적인 무성음화 또는 어떤 유음(glide)의 부정확한 교체. 다른 오류들은 아마 애매한 격 어미들의 그른 해석으로부터 유래할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중반 Ashoka의 죽음 이후 브라흐만 힌두교의 재흥은 종교언어로서의 산스 끄리뜨의 재 주장에로 이끈다. 결과적으로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혼성 불교 언어(Buddhist Hybrid Sanskrit) 라는 표제 아래서 지시되는 다양한 산스끄리뜨화된 프라끄리뜨 (Sanskritized Prakrits)어로 자신들의 텍스트들을 다시 쓰기(rewrite) 시작했다. 그 소승 경 전(Theravādin canon)이 기원전 1 세기 경 실론(Cylon)에서 [글로] 쓰여졌을 때, 많은 산 스끄리뜨어화된 자음 군들이 적절한 빨리어 형식들의 자리에 이미 끼워졌다. 일반적으로 산 스끄리뜨어화 된 그런 형식들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맥이 특별한 접미어의 해석을 선명하게 하지 못하는 작은 수의 예들에서 예외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들에서의 그 접미어 는, 비록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산스끄리뜨어화 됐지만, 변하지 않은 채 남겨졌거나 또 는 음성학적으로 비슷한 그러나 부정확한 형식으로 변했다(Hinüber 1982: 135-6). 도입된 산스끄리어화된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부정확한 역(back, 逆)-형성(formations)들이다 (Norman 1983:5). 그 경전을 글로 씀은 산스끄리뜨어 형식들의 전체 복구를 끝나게 했으며 그리고 그것의 언어에서의 다른 어떤 변화를 끝나게 했다. 그 이후의 어떤 변경들은 동시대 의 Sinhalese Prakrit 또는 드라비다인의 말(speech)의 특성들을 아마 주여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Sinhalese Prakrit의 영향을 보여준다고 주장되는 소수의 몇 몇 보기들은 아마 다른 길들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Norman 1976).

'빨리어'(Pali) 라는 이름의 (기교적으로 부정확한) 쓰임새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기원후 5 세기부터 실론(Cylon)에서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주석들의 언어를 포함하는 데까지확장됐다. 비록 그것들이 수 세기 보다 더 이른 북 인도로부터 가져와진 재료들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래도 말이다. 이것들 안에 그리고 그 시기 이후로 실론 또는 남인도에서 작성된 다른 저술들 안에 Sinhalese와 Dravidian 형식들의 존재를 위한 증거가있다. 여러 드라비다어 낱말들은 처음 시기에 경전-이후의 빨리어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며(D'Onza Chiodo & Panattoni 1977, 1984), 어떤 드라비다어 기원이 고대 인도-아라어로부터 전승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빨리어 안의 어떤 문법적인 그리고 구문론적인 특색들을위해 요청됐다(de Vreese 1980).

중간 기에 빨리어는 실론에서 Sinhalese와 산스끄리뜨어 양자에 의해 영향을 입었다. 이시기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많은 빨리어 저작들은 Sinhalese로부터의 번역들이며 그리고 그러한 언어로부터의 차용어들을 포함한다. 산스끄리뜨어로부터의 사전적인 차용어들을 많다. 빨리어 사전들은 대 부분 산스끄리뜨어 저작들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산스끄리뜨어 문법가들의 예들을 따르면서 빨리어 문법가들은 그 언어의 특색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기 시작했다. 이들 문법가들의 빨리어 기술들은 자신들의 수고들을 '교정'하려는 의도를 지닌 서기판(scribes)들에 의해서, 심지어 그들이 끼워넣은 '교정들' 중 어떤 것들은 인위적인 창조물들이며 그리고 거부되고 있었던 독본(readings)들보다 더 열등한 것일 때 조차, 결국 규범으로 취해졌다. 산스끄리뜨어에 관한 앎은 중기 인도-아라어의 일반적인 규칙들에 반대되는 어떤 산스끄리뜨어적인 형식들의 수고들 안에서의 발생의 원인이 됐다(Norman 1988). 보다후기의 빨리어 주석가들 중 어떤이들은 그들이 전달해주었던 텍스트들의 음성학과 형태론에 영향을 미쳤던 산스끄리뜨어에 관한 앎을 분명히 지녔다. 문법가들에 의해 인용된 그러나지금은 각기 곳에서 산스끄리뜨어적인 형식들에 의해서 교체된 어떤 빨리어 단어들의 그 경전들로부터의 완전한 사라짐에로 이끌고 간 것은 아마 산스끄리뜨어 형성(formations)들을 선호함이었으리라(Hintiber 1983: 74-75).

Ceylon과 Burma와 그리고 남동 아시아 그 이외의 곳에로의 소승(Thervāda) 불교의 유입은 거기에서의 주석적인 저술들과 연대기적인 저술들을 위한 빨리어의 채용에로 이끌었다. '빨리'(빠알리, Pali) 라는 이름은 (틀린 발음에 토대를 둔) 철자법(Spelling)과 구문론에 근거한 그 언어의 흔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대 저술들의 언어에 사용됐다(Norman 1983:6-7). 북 인도 지역들에 위치한 많은 초기 불자(Buddhist, 佛者)비문들은 그 정경 언어와 다소 동일시되는 중기 인도-아랴어의 한 형식의 글로 쓰여졌으며 그리고 빨리어인 것으로 기술되어진다(Konow 1908:292). 아마도 그것들은 Theravādin 방문자들의 현존을 가리킬 것이다. '대륙 빨리어'(continental Pali) 라는 이름이 최근에 인도에서 발견된 어떤 텍스트들의 언어에 적용됐다(Hinüber 1985). 이런 적용은 정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진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자음 군들의 형식에서처럼 이들 텍스트들의 특색들 중 어떤 것들은 다른 빨리어 텍스트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언어는 기껏해야 자신의 특징들이 빨리어의 그것들과 아주 비슷한 하나의 Prakrit로서 기술되야하기 때문이다. //

#### 2)그 언어의 특징들

빨리어는 고대 인도-아라어 즉 베다어와 산스끄리뜨어에 전체적으로 아주 근접 해 있는 중기 인도-아라어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다른 중기 인도-아라어가 [고대 인도-아라어에 대해] 맺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관계를 보여준다. 즉 잘-문서화된 더 이른 방언들 중의 하나로부터 빨리어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 모든 가능성으로 보자면 빨리어의 토대는 이들 두 개[베다어와 산스끄리뜨어?] 와는 다른 고대 인도-아라어의 어떤 방언이다. 그 증거는 베다어와 산스끄리뜨어 iha(Avestan i&a와 비교할 것)를 벗어난(beside) idha 'here' 또는 아베스타어 še와 고대 페르시아어 šaiy에서는 발견되지만 베다어 혹은 산스끄리뜨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삼인칭 전접 대명사 sē와 같은 그런 항목들에서 보여진다.

#### 2-1)음성학

산스끄리뜨 모음들 중에서 r는 a 또는 i 또는 u에 의해서 나타내진다. 긴 이중모음 āi와āu는 ē와 ō와 합쳐진다. 일반적으로 긴 모음들은 단지 열린 음절들에서만 유지되며 그리고 닫힌 음절에서는 짧아진다. 이것은 빨리어에서 두 개의 새로운 모음들 즉 짧은 e와 o를 생산한다. 예를들어 ottha- 그러나 산스끄리뜨어에서는 ōṣṭha-.

산스끄리뜨어 개별 자음들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된다. ḍ와 ḍh가 각기 (리그베다에서처럼) l과 lḥ로 되며 그리고 세 개의 치찰음들은 s로 합쳐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자음 덩어리들은 일반적으로 단지 두 개의 자음들로의 동화와 단순화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satta "seven" 그런데 산스끄리뜨어 sapta, aggi- "fire" 또 산스끄리뜨어 agni-, tikkha- "sharp" 그리고 산스끄리뜨어 tīkṣṇa-. 모든 마지막 자음들은 사라진다. 예를들어 viiju "lightnig" 그런데 산스끄리뜨어 vidyut.

#### ///2-2) 빨리어 스크립트들.

빨리어는 많은 다른 스크립트들로 글 쓰여진다. 인도에서의 빨리어는 고대 인도 스크립트 인 Braahmii(브라흐미 스크립트)와 Kharoshtii (스크립트)로 글 쓰여졌다. 불교가 세계의 다른 부분들로 확장됐을 때 해당 지역 사람들은 본디 인도 스크립트들을 사용하든지(그래서 까로쉬띠 스크립트는 중앙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용됐다) 또는 자신들의 지역 스크립트로 바꾸었다. 그래서 스리랑카(Sri Lanka)에서는 Paali어가 Sinhalese 스크립트로 글 쓰여졌으며, 버어마(Burma)에서는 Burmese 스크립트로, 태국에서는 Thai 스크립트로 그리고 캄보디아(CAmbodia)에서는 Khmer 스크립트로 글 쓰여졌다. 마지막으로 서구학자들과 견습자들이 불교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빨리어를 글로 쓰기 위해 로마 철자들을 사용했다. 해당 스크립트들은 다음과 같다. //

梵文教學

> 藏文教學

巴利文教學



lessons of Language

# 巴利文教學

梵文、巴利文、藏語教學

### 1. 字母與發音 (中文)

1. 巴利語字型簡介	. 簡介 . 梵寐文字 (印度) . 佉盧虱吒文字 (印度) . 天城文字 (印度) . 天城文字 (印度) . 錫蘭文字 (斯里蘭卡) . 緬甸文字 . 泰國文字 . 老撾文字 (寮國) . 高棉文字 (柬埔寨)
2. 羅馬化字母與發音練習	
3. 依字典順序排序的字母	
4. <u>發音練習</u>	

#### 回到 頁首目錄

### 巴利語簡介

Paali is a member of the Indo-European family of languages, together with most languages of Europe, Iran and northern India. Inside this family it belongs to so-called Middle Indo-Aryan languages. This group is also called Prakrits in Indian linguistic works. Paali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oldest surviving Prakrits.

巴利文與歐洲、伊朗、北印度大部份的語言一樣,是印歐語系的一支。在印歐語系之中,巴利文歸屬於中印度-亞利安語系,此語系在印度語言學著作中也被稱為Prakrit語。因此巴利文可以說是現存最古老的Prakrit之一。

The origin of Paali is still unclear. It was for a long time considered to be identical with Maagadhii, the Prakrit of Magadha, where the Buddha spent most of his life and teaching career. This ancient region is situated in modern Indian state of Bihar, in North-Eastern India. But more careful examination in recent years showed that Paali bears closer resemblance to Prakrits of Western India than to that of Magadha. The famous Indian emperor and patron of Buddhism A`soka, who lived only a few centuries after the Buddha, left many inscriptions all over his empire which stretched far beyond the borders of present day India. All these inscriptions were written in local vernaculars, using different scripts that were in use in that place and time. Paali is very close in grammar and orthography to the language of the inscriptions in what is now the Indian state of Uttarpradesh.

巴利文的起源目前仍然是不清楚的。曾經有一段很長的時間它被認為是與摩揭陀地方的古語摩揭陀語同源的,摩揭陀是佛陀度過大部份的生命與教學生涯的地方,這古代的地區位於現代印度東北方的比哈爾省。但近年來更多仔細的調查顯示出,巴利文跟摩揭陀地方的Prakrit語比起來,更相似於西印度的Prakrit語。佛陀死後幾個世紀,著名的印度

### > 課程章節

- 1. 字母與發音
- 2. 小辭典
- 3. 經文選讀
- 4. 實用巴利語文法
- 5. 語尾變化
- 6. 習題
- 7. 參考工具
- 8. 略字表
- 9. 對照表

Foreign1字型

🔍 站內檢索

GO

諮詢服務台 Online Service

若您對本網站有任何問題或建議 器誠歡迎您利用本信箱來図詢問 國王、佛教的領導者阿育王,在他遠比現代印度領土更為廣大的帝國各地遺留下許多碑文,這些碑文都是使用各地的方言所寫,用的是當地當時所使用的各地不同的字體。巴利文和現代印度Uttarpradesh邦所發現的碑文文字在文法及拼字方面是相當類似的。

Therefore it is safe to assume that Paali was created artificially, probably not on purpose, but rather as monks and nuns from different parts of India ca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were forced to adapt their vernaculars to new environments in order to understand and be understood.

**达**此,若假設巴利文是人為地被創造的將是不會引起爭議。與其說它是刻意地被創造出來,不如說是印度各地的僧尼彼此接觸後,被迫改變他們的方言去適應新環境,以便能夠彼此溝通了解。

Paali was and is written in many different scripts. In India, it was written in ancient Indian scripts Braahmii and Kharo.s.thii. When Buddhism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local people used either original Indian scripts (so Kharo.s.thii was used for a long time in Central Asia) or switched to their own local scripts. So in Sri Lanka, Paali is written in Sinhalese script, in Burma it is Burmese script, in Thailand Thai script and in Cambodia the Khmer script. Finally, when Western scholars and practitioners started to learn about Buddhism, they used Roman characters to write Paali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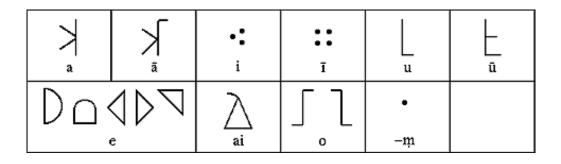
□ 利文在過去和現在使用許多不同字體,在印度,它用梵寐文字和佉盧虱吒文字等古印度字體寫成。當佛教傳播到世界其他地區時,當地人民會使用原始印度字體 因此佉盧虱吒文字在中亞被使用了一段很長時間 ,或者會將原始印度字體轉寫成當地文字例如在斯里蘭卡,巴利文是以錫蘭語改寫;在緬甸是以緬甸語改寫;在泰國是以泰語改寫;而在柬埔寨是以高棉語改寫 。最後,當西方學者及修行者開始學習佛教學時,他們使用羅馬字體改寫巴利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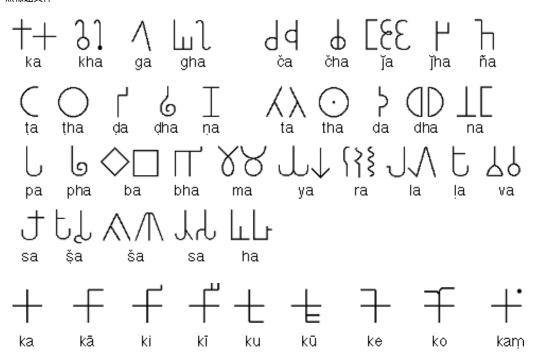
This page was created using some material downloaded from <u>Omniglot</u> 這網頁內容是從 <u>Omniglot</u> 下載的。

Miroslav Rozehnal November 2001 米瑞克 2001年11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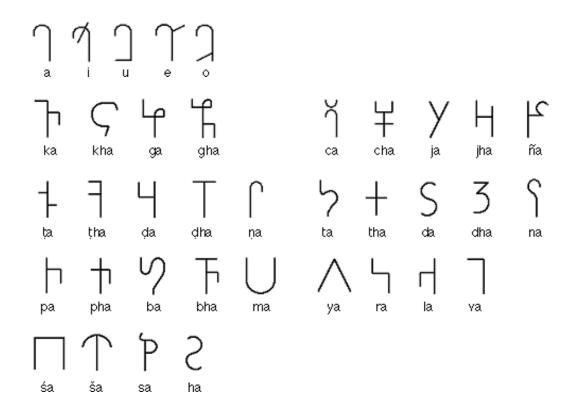
#### 回到 頁首目錄

### 梵寐文字 (印度) Brahmi Script (India)





### 佉盧虱吒文字 (印度) Kharosthi Script (India)



### 回到 頁首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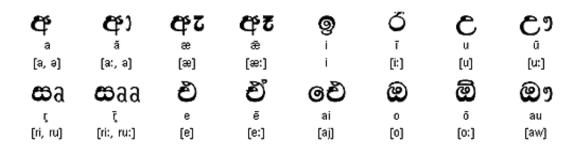
# 天城文字 (印度) Devanagari Script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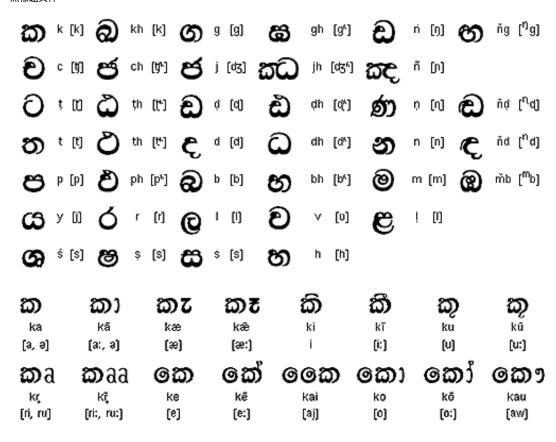
पु पू पृ पॄ प рī рū рŗ pa рā рi рŗ рe pai pau ३ 0 ٥

- anunāsika/candrabindu nasalises the vowel its attached to, e.g. 372T = amśa [ãça]
- \_ anusvāra adds an 'ng' [ŋ] sound to a consonant, e.g. अं = aṃ [aŋ]
- ং visarga voiceless breath, e.g. आः = aḥ [ah]
- ্ virāma mutes the inherant vowel of a consonant, e.g. क = ka [kʌ] ক্ = k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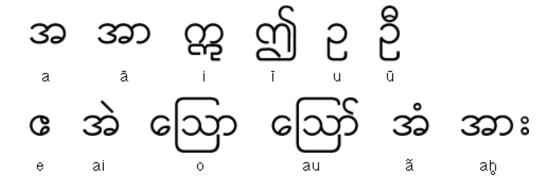
### 回到 頁首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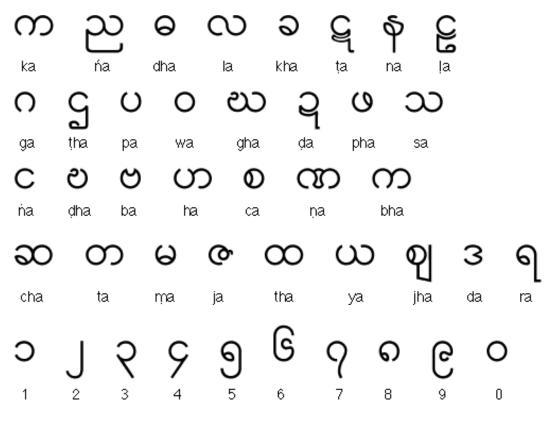
### 錫蘭文字 (斯里蘭卡) Sinhalese (Sri Lanka)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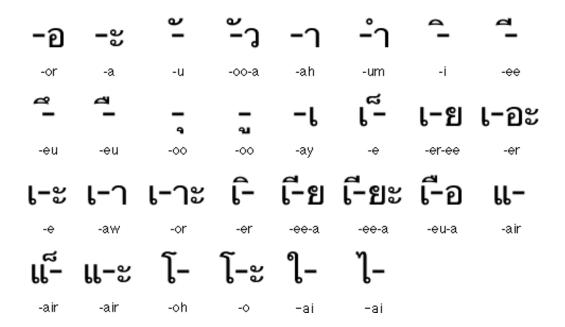


## 緬甸文字 Burmese Script (Burma/Myan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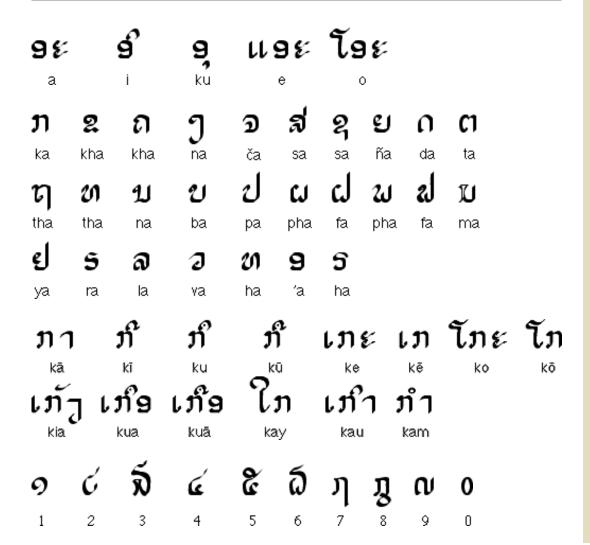


### 泰國文字 Thai Script (Thailand)





### 老撾文字 (寮國) Lao Script (Laos)



### 高棉文字 (柬埔寨) Khmer Script (Cambodia)

Vowel diacritics

Independent vowels

Ŷ

Ŋ

Consonant-vowel combinations

ធា

ŷ



### 羅馬化字母與發音

分 ***	母音		子音		
類 發音位置	單母音 短/長	雙母音	一般子音 (鼻音)	(氣音/半母)	絲音
喉音	<u>a</u> <u>a</u>		<u>k kh g gh v</u>	<u>h</u>	
顎音	<u>i</u> <u>i</u>	<u>e</u>	c ch j jh b	У	
舌音			t th d dh n	<u>r</u>	
齒音			t th d dh n	<u>l</u>	<u>s</u>
唇音	<u>u</u> <u>u</u>	<u>o</u>	p ph b bh m	V	

### 回到 頁首目錄

### 依字典順序排序的字母



### 回到 頁首目錄

### 發音練習

#### 2-3)명사들

명사 변화(declension)는 산스끄리뜨의 그것과 비교하여 단순화됐다. 예를들어 쌍수가 상실됐으며, 8 개의 격 체계는 줄어들었다. 여격은 거의 전적으로 소유격(2격)으로 합쳐졌으며, 가장 흔한 변화인 a 변화에서 이러한 격은 움직임의 방향과 그리고 적은 몇 몇 공통 의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게 된다. a- 변화에서의 도구격 복수는 산스끄리뜨어 -āis 보다는 오히려 베다어 ēbhis와 같은 형식으로부터 파생된 -ēhi(예를들어 dhammēhi)로 끝난다. 탈격 복수는 도구격 복수와 합쳐지며 그리고 여격 복수는 여격 복수와 모든 변화에 있어 합쳐진다. 자음들로 끝나는 어간들은 그 어간들의 마지막 자음들의 손실에 의해서든 또는 자음뒤에 모음의 덧붙힘에 의해서든 모음 변화 유형들로 보통 교체된다. 예를들어 산스끄리뜨어 āpad-"misfortune"은 āpā 또는 āpadā에 의해 나타내진다.

### 2-4)동사들

동사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명사의 그것에 있어서 보다 더 심지어 크다. 중간태 (middle voice)는 오래된 방언 보다는 젊은 방언에서 그렇게 더 많이 폐기된다. 수동체계는 중간태 대신에 능동 어미들을 지닌다. 완료시제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시제는 접미어 a-의 출현과 사라짐을 위한 복잡한 규칙들을 지닌, 미완료 형과 부정과거(aorist) 형의 혼합이다. 희구법은 계속해서 발견되며, 베다어 접속법은 오래된 방언에서 발견된다.

산스끄리뜨어 현재 체계의 수 많은 류형의 동사들 중 많은 것이 thematic 류형인 접미어 -a-를 지니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접미어 -aya-를 지니는 산스끄리뜨어 명사유래(denominative) 동사들로부터 파생되된, 접미어 -ē-를 지니는 유형의 확장이었다. 예를들어 산스끄리뜨어 kathayati "he sayes" 그런데 빨리어 kathēti. 이것 이외에도 고대 유형인 vādati와 마찬가지로 vadēti가, maññati(산스끄리뜨어 manyatē)와 마찬가지로 maññēti가 거기에서 나타난다. 비록 어떤 동사들이 심지어 그 새로운 것들 이외에도 미래 또는 과거분사 또는 그 이외의 곳에서 몇 몇 역사적으로 올바른 형식들을 보유하기는 해도 현재 체계는 동사 체계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통해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확장의 예는 "to drink"를 뜻하는 동사의 형식들에서 보여진다. 이 동사는 산스끄리뜨어에서 겹쳐진 현재 pibati "he drinks"를 지니나 미래 pāsyati "he will drink"와 동명사 pītvā "having drunk"를 지닌다. 이에 상응하는 빨리어 형식들은 pivati, pivissati(그리고 passati), pivitvā(그리고 pitvā)이며 그리고 과거 형들 pivāsiṃ "I drink", apivi "he drank"이 있다.

#### 3)빨리어 문헌

빨리어로 된 현존하는 고대 문헌 대부분은 불교 Theravāda(소승(小乘), 상좌부(上座部)) 분파(school)의 경전인 Tipiṭaka Pāli로 정돈된다. 비록 그것이 유일한 정통 전통이라고 주장되지만 Theravāda는 붓다의 Nirvāṇa(산스끄리뜨어; 빨리어로는 Nibbāna, 해탈) 이후 북인도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점차적으로 갈라져 나갔던 많은 분파들 중의 하나였다. 본디 중앙 그리고 서부 인도에 위치했던 이 분파는 붓다의 추종자들이 (브라흐마니적인 학습의 산스끄리뜨어 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방언들로 붓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붓다의 권고에 따라서 이 분파는 (기원전 5~3 세기의) 그 경전(canon)을 그 지역 방언인 말로(orally, 구두口頭로) 분명하게 암송(reherased)했다. 나머지 다른 경전들과 비교 할 때빨리어 경전은 붓다 탓으로 돌려지는 가르침들의 공통 유산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소하게 변경됐을 것이며 그리고 이차적인 텍스트들이 그것에 덧 붙혀졌을 것이다. 가장 늦은 중요한 덧붙힘들은 기원전 2 세기 경의 저술들이다. 다른 분파들의 그것들과 그 고대 텍스트들의 본질적인 비슷함으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들로부터 빨리어 경전은 서부에로의 이차적인 그리고 보다 후대의 팽창과 더불은, 기원전 6 세기와 4 세기 사이의 Magadha 제국과 갠지즈(Ganges) 강 중류 지역의 문헌을 주로 나타낸다고 말해질 수 있으리라.

기원 후 5 세기 이전의 어느 때에 그 경전의 언어는 (애매하게 나타나는 붓다의 권고에 관한 새로운 주석을 통해: "his own" (그의 자신)이든 "my own"(내 자신)이든 "own") 붓다자신의 언어로 더구나 북동 방언인 Māgadhī로 간주됐다. 더 이상 현행 토속어가 아닌 빨리어는 Theravāda (소송(小乘), 상좌부(上座部)) 불교의 표준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로 사용되게됐다. 이러한 문어는 기원전 14 세기 경까지 인도 특히 남부 인도에서 그리고 그것이 기원전 3 세기 경 유입된 Ceylon에서 그리고 기원 전 11 세기 까지 그것이 실론으로부터 확장된 Burma에서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20 세기에서도 사용되는 Siam(Thailand)과 Cambodia와 Laos와 Vietnam에서 융성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11 세기 경 인도네시아(Indonesia)에서 짧게 융성했다. 그 빨리 경전은 기원전 1 세기에 Ceylon에서 글로 쓰여졌다—실천적인 요구의 압박 하에서 단절되 가고 있는 구전(oral transmission, 口傳)에 호의적인 편역(prejudice). 반면에 보다 후대의 문헌은 순수하게 글로 쓰여진 문헌이다.

#### 3-1)그 경전의 나뉨들

Tipiṭaka("Threefold Basket"; 산스끄리뜨어로는 Tripitaka, 삼장, 三藏)는 세 부분으로 정돈됐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도회 건립에 대한 붓다의 간략한 생애와 첫 대 파벌(schism, 분파)(기원전 약 386 년 경)까지의 그 수도회 내에서의 사건들의 기록을 포함하는, 붓다에 의한 각 수도원 건립 이야기를 지니는, 227 가지의 불자의 수도원 계율(monastic discipline)인 Vinaya Pitaka(율장, 律藏); 대화(sutta 또는 suttanta) 형식으로 발전된 불교의 교리(dhamma)와 이야기들과 시들인 Sutta-pitaka(경장, 經藏); 그리고 붓다 철학이 체계적으로 Theravāda 가르침에 따라서 그 안에서 확립된 고찰들의 모음집인 Abhidhamma

Piṭaka(논장, 論藏). 보다 더 엄밀한 감각의 문헌으로서의 그것은 이런 나뉨들 중 아주 흥미 있는 Sutta인데, Sutta는 가장 많은 텍스트들이며 가장 이른 텍스트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비록 몇 몇 문어적인 특질(merit)의 우연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인 관심들의 문제들을 지니기는 해도 Vinaya는 주로 내용에 있어 율법적이다.

#### 3-1-1)Sutta(vedic, sūtra; 경, 經).

그 대화(the dialogues)들은 (우주의 자연; "영혼"이 있는 지의 여부; "불멸성"; 윤회 (transmigration); 자유의지; 신성; 인과; 그리고 윤리학과 같은 그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 적인 주제들에 관한 그리고 선한 삶에 관한—무상한 세상의 행복 추구의 만족스럽지 못한 자연과 그리고 삶과 해를 끼치지않는 삶과 자기-조절과 자기-소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 nibbāna("enlightenment", 해탈) 상태가 획득될 수 있는 평온 또는 분리(upekhā, detachment)로 이끄는 명상과 지혜와 자기-조절과 자기-소유와 해를 끼치지 않는 삶과 부 정(renunciation, 否定)하는 불자의 길에 관한—논의들을 포함한다. 붓다는 동부 인도의 다 양한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브라흐마니 사제들과 순회 철학자들과 고행자(asetics)들과 왕들 과 귀족들과 그리고 도시들에 사는 많은 남 녀 전문가(professions)들을 만나, 이런 대화들 에 참여 생생하고 예리한 스타일로 직접 말을 걸었다고 묘사된다.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자 들에게는, (즉 분리를 추구하면서 방랑-순회-하는 삶을 위해 그 세계를 포기하지 않은 자들 에게는) 사회적인 덕들과 선한 우정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조장하는 것으로 추천된다. 붓 다의 토론에는 유머가 풍부하다. 예를들어 외부의 법(dhamma)을 무시하거나 또는 전지 전 능한 체 하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그러나 하늘의 다른 거주자들 앞에 드러난 자 신의 무지를 회피하는 것에 주로 치중하는 신성("신)[deity("God")]의 펌프적(pumpous)인 거짓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길로 범죄를 막아 보려는 왕의 시도들로부터 유래하는 사회의 퇴폐를 예증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할 때처럼. 가장 좋은 대화들은 그 언어의 부유함 과 유창함 그리고 그 에피소드(episodes)들의 다양함과 근원성으로부터 판단컨데, 그 Sutta(경)의 아무 아주 고대의 권위적인 부분일 **Dīgha-nikaya**("Collection of Long Dialogues")에 모아진, 보다 긴 것들이다. 때때로 운문(verse)과 짧은 시들이 그 대화들에 나타난다. 예를들어 보통 불자의 가르침 또는 교리의 간결한 요약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 는 vīṇā에 동반하는 사랑의 노래를 비유적으로 언급하면서, 자발적인 운문(udāna)이 몇 몇 사건의 영감 하에서 발설됐다. (붓다의 질들을 묘사하는) 서정적인 운율(metre)속에서 많은 많은 우연적인 운문들을 지니는 대화편 하나는 붓다의 Nibbāna 후에 제자 Ānanda에 의해 덧붙혀졌다고 말해지며, 다른 것들은 그들 중의 하나가 재산도 없고 노동도 하지 않는 실재 유토피아를 지배하는 네 부분들로 나뉜 땅을 보호하는 정령(spirits)들에 관한 진지한 민요 운문을 포함한다. Majjhima("Medium-length")와 Samyutta("Claasified")와 Anguttara ("Enumerating") 등 다른 세 Nikayas를 지니는 **Dīgha**는 서로 맞물리는 그러나 아주 동질 적이지는 않은 네 가지 Nikãyas를 이룬다.

위에 언급된 것들과 그리고 Samyutta의 첫 부분에서의 노래들(geyya)을 제외하면, 그 경

전의 시(poetry)는 다섯 번째 nikāya, Khuddaka-nikãya("Collection of Minor Tests")에 모아진다. 아마 이것은 붓다의 추종자들에 의한 시(poem)들의 그러나 붓자 자신 탓으로 돌려지는 몇 몇 짧은 대화들을 포함한 모음집일 것이다. (비록 붓다가 노래들 듣기를 권하고 그리고 dhamma의 시적인 제시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풍부한 직유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가끔씩의 운문들을 지니는 자신의 토론을 권했기는 하지만) 생계 획득의 세속적인 수단으로서의 시적인 편찬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해진다. 따라서 그의 Nibbāda 후의 교리 교정은 처음 Khuddaka 텍스트들을 베재했을 것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최소한도 기원전 3 세기에 이르러 확장됐으며 그리고 새로운 장르들이 불자의 가르침의 포교를 위해 이용됐다.

빨리어 시(Pali poetry)는 거의 300 가지의 다른 운율(metres)들이 사용된 그리고 낱말 음악(word music)과 아주 다양한 리듬 패턴들이 우세한 서정시(lyric)와 그리고 단음 (monotony)을 회피할 수 있는 아주 유동적인 라인(line)을 지니는 이야기적인 단일 음율에 주로 한정되는 서사시(epic)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빨리어 운율들은 량적이다. 그러나 시원 적인 이야기적인 운율은 긴 음절 하나를 짧은 음절 하나로 교체하는 것에 의한 마지막 리듬 (카덴짜, cadence)를 제외하면 다양한 리듬(rhythm)을 허용하며 그리고 한 라인(행, line) 안의 많은 음절들(두 그룹의, 마지막 카덴짜와 대조되는 반(半)-카덴짜, 8로 된 16)에 토대 를 두는 반면 서정적인 운율들은 엄밀하게 량적이다: 두 개의 짧은 음절들은 정확히 긴 음 절 하나와 똑 같으며 그리고 여러 번 긴 음절 하나로 교체될 수 있으리라. 대부분의 빨리어 서정적 운율은 기원전 5 세기의 인도 시에 새로웠던 구조인 토대로서의 음악적인 악구 (phrase)를 함축한다. 스타일의 어떤 특색들과 말의 어떤 모습(figures)과 어휘와 내용과 나 란히 빨리어 시의 이런 새로운 운율들은 산스끄리뜨어와 쁘라끄리뜨어로 된 그리고 결국 고 전 힌디어(Hindi), Apabhraśa 등으로 된 kāvya 문학의 운율들의 원형들이다. Vāgisa와 Tālaputa와 Ānanda와 같은 그런 빨리어(또는 본디 Māgadhī) 개척자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인도의 위대한 시를 짐짓 매개하고 있는 것이라고(the forging of the medium)말하는 바의 것이다. 어떤 종류의 공연을 함축하고 있는 운문으로된 어떤 드라마적 인 대화들은 이 시기의 인도 드라마의 발전에 관련된 증거로 삼아졌다.

Khuddaka 안의 보다 더 긴 이야기들로 된 Jātaka는 빨리어 서사시의 가자 좋은 예들을 포함한다. ( 몇 몇의 jātakas, 곧 붓다 출생 또는 화신들의 이야기들을 그러나 산문으로 포함하는) Dīgha에서 보여진 이야기하는 기교를 (운문으로 된) Jātaka 자체의 그것들과, 특히양자의 작품들에 공통이 어떤 이야기들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서사체적인 이야기(akkhāna)는 산문 또는 운문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형식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대중적 전통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서 산문 akkāyikā("history")과 운문 mahākāvya ("epic") 이라는 대조되는 산스끄리뜨어 kāvya 장르들이 된 것은 단지 후대의 일 일 뿐이다. 많은 Jātaka 조각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운문들을 지니고 있어서, (요구될 때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단지 절정 또는 가장 의미있는 말 또는한 때 잘알려진 도덕적인 이야기 만을 제공한다. 몇 몇의 경우에 충분한 이야기가 Dīgha 또는 그 이외의 곳에서 고대 형식으로 보존된다. 그 Jātaka는 (불자 윤리의 단지 결치장

(veneer)일 뿐인) 고대 민담의 두드러진 보고이며 고대 사회에 관한 자료의 부유한 재원이다. 마찬가지로 Khuddaka는 운문으로 된, (예를들어 붓다의 삶, Buddhavaṃsa와 그리고 수도승과 비구니(nun)들의 설화, Apadāna 같은) 단조로운 설교를 위한 계몽적인(edifying)자료로 편찬된, 네 가지 열등한 이야기 책들을 포함한다. 그 뒤에(then) (남 녀 수 백 저자들에 관한 작품인) 서사시 선집, Dhammapada와 Suttanipāta와 Theragāthā와 Therigāthā가 있는 데, 이것들 중 마지막 셋은 마찬가지로 소박한 민간 전승의 담시(ballads, 담시, 譚詩)들과 비록 짧은 서사시적인 에피소드들이기는 해도 셈세한 어떤 것들을 포함한다. 잡다한다섯 책들 이외에도 Khuddaka는 마찬가지로 Abhidhamma 책들과 비슷한 광범위한 철학적소책자(Patisambhidāmagga)을 포함한다.

#### 3-1-2) Abhidhamma(론, 論)

Abhidhamma는 어떤 목록들의 확정과 설명 그리고 Mātikā("note")라고 불리우는 교리의 요점 요약들로 유래했다. 구성요소인 mātikās 대부분과 설명 대부분은 자신의 Nibbāna에 앞서 수도승들에게 행한 붓다 훈육의 Dīgha 논의에서 보급된 근본 목록인 Sutta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발견된다. 그것은 mātikā들의 근본 요약과 설명들인 Vibhanga, 그리고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의 종합체계를 향해 나아가는 (윤리학과 심리학과 물리학에 관한) 주로 교리요점들의 상호-분류들인 Dhammasangani와 Dhātukathā, 그리고 불교의 다른 분파들과의논쟁 요점들에 관한 반론(polemic)으로 구성된 그리고 토론과 논리의 초기 기교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Kathāvatthu, 그리고 형식 논리 연습 메뉴얼인 Yamaka로 이루어져있다. Paṭṭhāna는 Sutta와 Vibhanga에 있는 (우주의 자연에 관한 그리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의상태에 관한 초기 불자 교리에 근본적인) 인과론(caual theory)의 요소들로부터 종합된 인과이론 일반의 웅장한 확립이다.

#### 3-1)후대 빨리어 문헌

이것은 "역사" 또는 역사적인 소설(akkāyikā), Milindapañha의 외부적인 틀로 주어진 (Dīgha 양식으로 된) 긴 대화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 작품은 (아마) 기원전 1 세기의 kernel에로의 커다란 응고(accretions)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보인다. 주석에 관한 이론적인 작품들인 Netti와 Peṭakopadesa는 거의 동일한 시기의 것들이다. 이것들은 (알려지지 않는 날짜의) 그러나 약 기원후 5 세기 경의 (Kaccayana의) 가장 이른 현존 문법으로서의 인도사람(Indian) 작품들이다. Ceylon의 고대 수도인 Anurādhapura에 있는 (대 수도원) Mahāvihara는 Theravāda 연구들의 주요 중심지가 됐다. 인도에서의 불교 새로운 분파들과 움직임들은 새로운 언어를 채용했으며 그리고 고대 빨리어로 된 그것의 경전을 고집했던 그 Theravāda 분파(school)는 쇠퇴했다. 기원전 3 세기부터 Sinhalese는 그 경전을 해석하기 위한 고대 Sinhalese어로 번역된 구전(oral, 口傳) 주석(Aṭṭḥakathā) 전통을 지녔다. 기원전 약 100 년 경, 이 Sinhalese 주석은 포괄적인 범위를 획득했으며 마무리지어 졌다. 기원전 4 세기까지 내려온 Ceylon의 연이은 저술가들은 빨리어 (운문)으로 된

Dīpavamasa("History of the Island")를 편찬했다.

기원전 5 세기에 Anurādhapura에서 연구한 인도 불자들은 빨리어가 알려진 곳에서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 Sinhaese 주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빨리어로 번역했다. 전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빨리어가 전개됐다. Buddhaghosa는 (Sinhalese 전통에 따른 전체 범위의 교리의 입문적인 설명인) Visuddhimagga와 그리고 Vinaya, 네 가지 Nikāyas, Abhidhamma, 두 가지 Khuddaka 텍스트들에 관한 개괄적인 주석서을 글로 썼다. 나머지 akhuddaka 책들과 Netti에 관한 주석들은 Dhammapāla와 Buddhadatta와 Upasena와 Mahānāma에 의해, 그리고 (모든 Jātakas를 위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Jātaka 주석과 (400 개가 넘은 예시적인 이야기들을 이끌어들인) Dhammapada 주석과 그리고 Apadāna 주석의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 글로 쓰여졌다.

기원전 6 세기 초에 Mahānāma는 Dīpavaṃsa에 토대를 둔 그러나 고찰에 있어 통일된 그리고 양식에 있어 훨씬 세련된 운문(verse)적 연대기인 Mahāvaṃsa를 글로 썼다. 그것은 빨리어 문헌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말해질 수 있으리라: 후기 kāvya의 국 면. 이것은 산쓰끄리뜨어와 쁘라끄리뜨어를 [이용했던] 그 경전의 직접 계승자들의 고대 빨 리어 kāvya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긴 해도, 그 계승자들이 수 세기 동안의 어투와 정제를 통해 kāvya를 가져 온 후에 계승자 그들로부터 자신의 스타일(양식)을 파생시켰다. Mahānāma는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한 백성을 고무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진술 한다. Dīpavaṃsa 같은 그의 연대기는 그 붓다의 완성된 깨달음으로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의 인도와 그리고 기원후 4 세기 까지의 Ceylon에서의 불교 역사를 이야기한다. 서사시 kāvya의 관습에 의해 영향을 받은 Mahānāma는 Ceylon에서의 불교의 도입과 정착에 주로 책임있는 두 명의 Sinhalese 곧 (기원전 3 세기의) Devānampiyatissa와 그리고 Tamil 지 배로부터 자신의 지역을 자유롭게 했던 국가적인 영웅으로 간주되는 (기원전 1세기의) Dutthagāmaṇi의 행위들을 확고하게 공표하기 위해 자신의 연보(annals, 年報)를 중단한다. Ceylon의 후대 시인들은 Mahānaṃsa의 (자주 Cūlavaṃsa라고 불리우는) 부록들을 글로 썼 다. (기원후 13세기) Dhammakitti에 의해 글로 쓰여진 첫 번째의 그리고 가장 긴 것은 국가 적인 영웅으로서의 (12세기) Parakkamabahu I의 서사시적인 고찰에 집중한다.

연대기적 서사시는 남동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들의 역사들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붓다의 생애와 같은 다른 이야기들을 위해 채용됐다: 예를들어 (13 세기 Ceylon) Medhankara의 Jinacarita와 그리고 (18세기 Burma) 익명의 Mālānkara. (15 세기 Burma) Sīlavamsa의 Buddhālankāra는 붓다가 처음으로 하나의 붓다로 되려고 결심했던 때, Sumedha로서의 그 붓다의 이전 화신에 관해 우호적으로 이야기한다. 여러 다른 작품들은 종교적인 역사의 특별한 측면들을 다룬다. 붓다가 [그 아래서] 깨달은 나무를 잘라 Ceylon으로 가져오는 것에 관한, (기원전 약 970 년까지의) 산문 (Mahā) Bodhivaṃas는 빨리어에 동화한 동시대의 산스끄리뜨어 kāvya의 많은 어휘들을 보여주는 그 스타일에 때문에 아주 흥미롭다. (단지 일 상적인 이야기 운율을 지니는 여러 편(cantos, 篇)들 대신에 자주 서사시적 기원의 다른 운율들의 여러 편들을 지닌) 실로 산스끄리뜨어 mahākāvya의 스타일은 Tooth Relic에 관한

(기원후 약 1200 년 Ceylon) Dhammakitti의 Dāṭḥāvaṃsa에서 예시된다. 20 세기에는 (Ceylon) Medhānanda의 (1917년에 간행된) Jinavamsadīpa (붓다의 생애)와 같은 그런 mahākāvyas가 있다. 전기(傳記)에 관해서는 (? Ceylon ? 14 세기) 그 성자의 삶에 관한 대중적인 종교적 소설인 Medhānanda의 Buddhaghosuppatti와 그 동시대의 Burma 왕 Bodōpayā의 행위들을 기념하는 (18 세기, Burma) 교양있는 Nāṇābhivaṃsa의 Rājādhirājavilāsinī가 언급된다.

후대 서사시 kāvya에는 끓는 기름의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그의 순진무구함때문에 한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한 수도승에 의해 암송된, 포기(renunciation)에 관한, 익명의 ([장소]?, 10 세기) Telakaṭāthā와 그리고 붓다를 묘사하고 있는 (Ceylon에 사는 인도인수도승, 13세기) Buddhappiya의 Pajjamadhu가 있다. 훨씬 더 긴 (Ceylon, 13세기) Vedeha의 Samantakūṭavaṇṇanā는 붓다의 생애와 그리고 붓다의 Ceylon에로의 (신비한) 방문과 더불어 그것의 최상의 정점(Adam의 정점)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방문을 묘사하는 서사시와 서정시의 경계에 놓여 있다. Sinhalese 풍광에 관한 Vedeha의 묘사들은 주목할만하다. citrakāvya 라는 장르 또는 낱말 놀이와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kāvya 편찬의 단순한 기교들 그 자체로 덕을 나타내는 시는 붓다의 생애(이 생애는 그 시의 형식 그대로이며 그리고 그 시의 내용 편찬에 있어서의 덕 그대로이다)에 관한 (Ceylon, 12세기) Buddharakkhiṭa의 Jinālankara에 의한 그 극단적인 형식으로 제시된다.

Ananda의 (12세기 후기) Saddhammopāyana는 독자로하여 그 불자의 길을 따르는 기회를 다그쳐 잡도록 하는 19 편들로 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교육 시이다. 특히 고생의 짐승들로서의 동물들의 고통들의 묘사는 그의 예술의 섬세한 예이다.

13세기 익명의 Hatthavanagallavihāravamsa("수도원 Hattavanagallavi의 역사")는 Bāṇa 의 산스끄리뜨어 소설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면서, (a campu) 그 안에서 빨리어 산문이 그것의 아주 우아해지고 짜여진 취급을 받아드리는 산문과 운문이 섞어진 kāvya이다. Vedeha의 Rasavāhinī는 대중적인 오래된 이야기들의 두드러진 모음집이다.

해석(Exegesis)은 빨리어 버젼의 *주석*들로 끝나지도 않거니와 철학(예를들어 "Little Finger"(작은 손가락)의 아홉 메뉴얼들처럼)과 분과들의 다양한 측면들에 관한 수많은 소책자들로 끝나지도 않는다. 많은 고대 Sinhalese 자료들이 번역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약 기원후 8 세기 후에 빨리어 주석들은 경전 텍스트들의 낱말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부수적으로그 근본 경전 텍스트들을 설명하는 하위 주석들(tīkā)과 더불어 제공된다. 대체적으로 tīkās는 주석들 보다 더 기교적이며 그리고 현대 사전학을 위한 철저한 토대를 제공한다. 가장이른 일단(一團)의, 기원후 8 또는 9 세기들의 tīkās은 Abhidhamma에 관한 (Ceylon에서활동한 인도인) Ānanda의 작품과 그리고 네 가지 Nikāyas와 Jātaka에 관한 Dhammapāla의 작품 그리고 Vinaya에 관한 (마찬가지로 인도인인) Vajirabuddhi의 작품으로 이루어져있다.

12세기에 (Ceylon의) Sāriputta는 Vinaya와 네가지 Nikāyas에 관한 상세한 tīkās를 글로

썼던 반면 남부 인도에서의 그의 주석적인 Kassapa는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 보다 더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간결한 Vinaya tīkā를 글로 썼다. Khuddaka에 관한 일단(一團)의 (날짜가 매겨지지 않은) tīkās와 그리고 Visuddhimagga와 같은 그런 ("주석"들로 간주된) 고찰들에 관한 많은 tīkās들이 있다. "새로운" Dīgha tīkā는 18 또는 19 세기에 Burma에서 글로 쓰여 졌다.

수많은 문법들과 마찬가지로 사전들과 운율에 관한 작품들과 시학 등이 Ceylon과 Burma 양 나라들에서의(Ceylon에서의 Moggallāna와 Saṃgharakkhiṭa, Burma에서의 Aggavaṃsa) 그런 행위의 정점을 표시하는 12세기에 실론과 버어마(미안마)에서 생산됐다. 마찬가지로 의학과 법률과 천문학과 미학과 문헌학에 관한 여러 저술들이 작품들이 있었다.